

결 재	지도교사	연구부장	교감	교 장

(연기실습)

교수학습 지도안

지도 과목	연기실습	
지도 대상	2학년 연기과	
지도 장소	B03호	
지도 일시	2026년 5월 27일	
지도 교사	박은송 선생님	
수업 교사	교육실습생	홍소리

교과 및 단원 연구

I. 단원명

1. 대단원 : 연극의 이해와 표현
2. 중단원 : 브레히트 연기이론
3. 소단원 : 브레히트의 이론을 바탕으로 서사극과 낮설게 하기를 통한 표현

II. 수업 대상

1. 수업 대상 :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2학년 연기전공

III. 단원의 개관

본 단원은 브레히트의 '낮설게 하기' 이론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익숙한 자신과 사물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며 창의적인 표현 능력을 확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기 교육은 단순히 대사를 암기하고 재현하는 활동을 넘어, 자신과 타인, 그리고 일상적 사물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무대 위에서 표현하는 과정이다. 특히 예술 고등학교 연기전공 학생들에게는 자기표현 능력과 즉흥성, 상상력, 신체 활용 능력이 중요하게 요구된다.

본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원하는 이름을 설정하고 새로운 이름으로 서로를 호명하며 일상적 자아에서 벗어나 또 다른 자아를 경험하도록 한다. 또한 브레히트의 '낮설게 하기' 개념을 이해하고, 익숙한 오브제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활동을 통해 사고의 확장과 상상력을 경험하게 한다.

이후 오브제 변형 활동을 바탕으로 즉흥 상황극을 구성함으로써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신체와 행동으로 표현하게 된다. 이러한 활동은 학생들의 창의적 표현 능력뿐 아니라 협동성, 반응성, 무대 감각을 기르는 데 도움을 주며, 연기 활동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자유로운 표현 환경을 형성하는 데 의의가 있다.

IV. 단원 설정의 이유

현대 연기 교육은 단순한 재현 중심의 연기를 넘어, 학습자가 스스로 사고하고 표현하는 창의적 역량을 기르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예술계 고등학교 연기전공 학생들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신체 및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뿐 아니라, 익숙한 상황을 새롭게 바라보는 상상력과 사고의 유연성이 중요하게 요구된다. 그러나 실제 수업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정답 중심의 사고에 익숙해져 자유로운 표현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자신의 표현에 대한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본 단원은 브레히트의 '낮설게 하기' 이론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익숙한 자신과 사물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를 창의적인 표현 활동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학생들은 새로운 이름

설정 활동을 통해 기존의 자아에서 벗어나 또 다른 인물을 경험하고, 오브제 변형 활동을 통해 일상적 사물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며 사고의 전환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즉흥 상황극 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신체와 행동으로 표현하면서 협동성, 반응성, 무대 감각을 함께 기를 수 있다. 따라서 본 단원은 학생들이 브레히트의 연극 이론을 단순히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표현 활동 속에서 직접 체험하며 창의적 사고와 자기표현 능력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Ⅵ. 교수학습 계획

차시	주제	수업내용 및 활동	비고
1	신체 훈련 및 브레히트 이론 작업	학습 목표 및 브레히트 이론 들어가기 1. 0의 상태 및 간단한 워업 훈련 2. 브레히트 서사극 이론 들어가기	분위기 형성
2	익숙함과 낯섬	[익숙함] 1. 이름표 활동 2. 익숙한 신체 표현 버블 활동 [낯섬] 1. 새로운 이름표 활동 2. 낯선 이름을 통한 연극놀이	자기표현
3	오브제 변형을 통한 즉흥 상황극	[익숙함] 오브제를 [낯설게] 변형하고 이를 즉흥상황극으로 표현한다.	창의표현

Ⅶ. 지도 방침 및 지도상의 유의점

1. 학생들이 자신의 새로운 이름을 정할 때 타인을 비하하거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2. 활동 과정에서 정답을 요구하기보다 자유로운 표현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함을 강조한다.
3. 즉흥 활동에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교사는 긍정적인 피드백과 분위기 조성에 유의한다.
4. 브레히트 이론 설명 시 지나친 이론 중심 수업이 되지 않도록 실제 활동과 연결하여 설명한다.
5. 오브제 변형 활동 시 사물의 원래 기능에 얽매이지 않도록 충분히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6. 발표 활동에서는 결과보다 과정 중심의 참여와 표현 의도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VIII. 본시학습 지도안

(연기)과 교수. 학습 지도안

단원명	연극의 이해와 표현		차시	3 (150분)	
수업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이름 활동을 통해 익숙한 자아에서 벗어난 표현을 경험할 수 있다. - 브레히트의 낯설게 하기 개념을 이해하고 표현활동에 적용할 수 있다. - 오브제를 새로운 의미로 변형하여 즉흥상황극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학습 자료	브레히트의 이론 PPT / 키워드프린트				
학습 단계	수업 내용	교수·학습활동			비고
		교사	스크립트	학생	
도입 (40분)	출결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결을 확인한다. ◆ 학습분위기를 조성한다. 	T :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출석 부르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결상황에 대답한다. ◆ 수업학습을 위해 분위기를 조용히 조성한다. 	PPT
	교사 소개 및 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교사를 소개한다. ◆ 학생들과 인사를 나눈다. 	T : 다 왔네요.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을 진행하게 될 홍소리 선생님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청하며 인사를 나눈다. 	
	준비물 체크 및 이번 시간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기도구를 가져왔는지 확인한다. ◆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p>[학습목표]</p> <p>1. 새로운 이름 활동을 통해 익숙한 자아에서 벗어난 표현을 경험할 수 있다.</p>	T : 오늘은 3차시동안 선생님과 브레히트의 서사극 중 낯설게 하기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키워드와 학습목표를 벽에 붙였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T : 좋습니다. 오늘 끝나기 전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비물을 챙겼는지 각자 확인한다. ◆ 학습목표를 읽는다. 	

		<p>2. 브레히트의 낯설게 하기 개념을 이해하고 표현활동에 적용할 수 있다.</p> <p>3. 오브제를 새로운 의미로 변형하여 즉흥상황극으로 표현할 수 있다.</p> <p>◆ 수업의 흐름을 안내한다.</p>	<p>머릿속에 이 키워드들을 각인하시고 수업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합시다.</p>	
<p>브레히트 이론 및 읽업</p>		<p>◆ ppt를 활용하여 이론 수업을 진행한다.</p> <p>◆ 브레히트의 생애와 서사극에 대해 설명하고, 낯설게 하기 개념에 대해 설명하며 대표 작품안에 나타난 서사적인 특징을 이야기 한다.</p> <p>[목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브레히트 2. 서사극 3. 낯설게 하기 	<p>T : 여러분은 브레히트에 대해서 들어봤나요? 브레히트는 20세기 독일의 시인이자 극작가이자 연출가였습니다. 그는 연극의 역할을 바꿔 관객이 연극을 볼 때 사고하게 만드는 서사극을 만들고자 하였고, 낯설게 하기 개념을 통해 관객의 사고의 폭을 넓히고자 하였습니다.</p> <p>T : 브레히트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연극은 왜 감정위로만 하는가? 그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그의 배경에 있었습니다. 브레히트가 살던 시대는 제 1차 세계대전과 그 이후의 무너진 사회 그리고 나치의 등장. 그 속에서 그는 연극으로 하여금 관객들이 생각하고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하다 느꼈죠.</p> <p>T : 그래서 나온게 바로 서사극입니다. 서사극은 사건을 서술하듯 보여주는 연극형식으로 기존 사실주의와는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몰입위주인 사실주의와는 달리 서사극은 몰입을 방해하여 관객에게 깨뜨리는 장치를 부여해 사고하게 만들었습니다.</p> <p>T : 그 대표장치가 바로 낯설게 하기 개념입니다. 익숙한 것을 낯설게 바라보게 하여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낯설게 하기의 표현 방식으로는</p>	<p>◆ 브레히트에 대해 들어본 적 있는 학습자는 자유롭게 의견을 말한다.</p> <p>◆ PPT 이론을 보며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질문하며 경청한다.</p>

		<p>◆ 교사는 시범을 보이며 거울 앞에서 0의 상태와 스트레칭 간단한 유산소를 진행한다.</p> <p>◆ 몸풀기 순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0의 상태 2. 스트레칭 3. 유산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객에게 말을 걸기 2. 극 중간에 노래나 해설을 넣기 3. 장면을 미리 알려주기 4. 사건을 에피소드 형식으로 진행하기 5. 감정에 빠지지 않게 연기하기 6. 오브제를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기 등이 있습니다. <p>T : 브레히트는 이러한 서사극과 낯설게 하기 개념을 이용해 관객이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지고 문제에 있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이는 현대연극에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지금 현재의 연극에서도 많은 서사적인 특징을 보이는 연극들이 있습니다.</p> <p>T : 특징 중에 우리는 6번째 낯설게 하기 표현방식을 사용해 마지막 교시엔 즉흥극을 할 예정입니다.</p> <p>T : 브레히트의 서사극과 낯설게 하기 개념을 알았으니 활동을 들어가기에 앞서 워업 훈련 진행하겠습니다. 거울 앞으로 서볼까요?</p> <p>T : 배우는 새로운 인물을 맞이하기 위해 0의 상태를 온전히 만들어야 무대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p> <p>T : 0의 상태에서 이제 가볍게 근육을 이완해보겠습니다. 목, 어깨, 허리, 다리 순으로 신체를 이완하며 신체 스트레칭을 진행해보겠습니다.</p> <p>(스트레칭 진행)</p> <p>T : 스트레칭으로 이완을 했으니 다음엔 활동에 앞서 가볍게 몸에 열을 내는 유산소를 해봅시다.</p> <p>(유산소 진행)</p>	<p>◆ 거울 앞에 바르게 서본다.</p> <p>◆ 질문에 자유롭게 대답하고 배우로서 0의 상태의 중요성에 대해 깨닫는다.</p> <p>◆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신체를 관찰하고 정렬해본다.</p> <p>◆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 몸의 순서대로 몸의 이완 및 유산소를 진행한다.</p>	
--	--	--	--	---	--

전개 (100분)	[익숙함] 을 이용해 이름을 공유하 고 버블활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름표를 배부한다. ◆ 자신의 이름을 쓰고 이름의 뜻을 발표한다. ◆ 나의 익숙한 자아인 이름을 걸고 자기만의 익숙한 공간인 집을 각자의 위치에서 그려낸다. ◆ 버블(자신의 가장 안전한 가상의 공간)을 형성한다. ◆ 교사가 집 - 등굣길 - 학교 앞 - 교실 안을 시간차로 말하면 학습자는 그 장소에 맞춰 자신이 행동하는 익숙한 행동을 상상하고 인지하여 표현한다. ◆ 학습자들이 자리를 잡으면 학교에 오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할 시간을 준다. ◆ 집 - 등굣길 - 학교 앞 - 교실 안 차례대로 학습자들이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장소를 바꾼다. 	<p>T : 워업을 하고 몸이 조금 풀렸나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들어갈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낯섬을 받아드리기전에 먼저 익숙함을 인지하고 받아드릴거예요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자아는 바로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가장 직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익숙함이죠.</p> <p>T : 그래서 선생님이 이름표를 줄 겁니다. 안에 종이를 꺼내 자신의 이름을 적고 이름의 뜻을 생각하고 같이 나눠볼겁니다</p> <p>T : 익숙한 이름을 공유했으니 이번엔 익숙한 신체표현으로 넘어가볼까요? [버블활동] 우리는 우리가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공간 즉, 버블을 형성할겁니다. 각자 공간을 위치해주시고 선생님이 공간을 말로 바꿀 때마다 그 공간에서 하는 나의 익숙한 습관 행동 말을 표현해볼거예요</p> <p>집 - 등굣길 - 학교 앞 - 교실 안</p> <p>T: 자리에 다시 앉아볼까요? 어땠나요? 익숙함을 인지할 수 있었나요? 우리가 낯섬을 받아드리기전 익숙한 자아를 인지해야 낯섬도 받아드릴 수 있기에 활동을 해봤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달받은 명찰에 이름을 작성하고 자신의 이름 뜻을 생각하고 이야기 나눈다. ◆ 버블형성을 이해하며 모르는 것이 있으면 바로 질문하며 버블활동에 들어간다. ◆ 자신의 평소 아침루틴에 대해 상상하고 인지해보는 시간을 가지며 상대방은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자신에게만 집중한다. ◆ 활동 후 자신이 인지했던 익숙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낯섬]		◆ 교사가 말하는	

	<p>새로운 이름을 만들어 연극놀이</p>	<p>◆ 낯선 이름 활동 안내</p> <p>◆이름표를 뒤집어 새로운 낯선 이름을 만들게 한다. 조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욕설 및 비방 금지 2. 한번쯤은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이름과 이유가 명확할 것. 3. 동물 사물 사람이름은 상관없음. <p>◆ 낯선 이름을 나눈다.</p> <p>◆ 1. 이름땡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술래를 정한다. - 술래에게 잡히기 직전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낯선) 이름을 말하면 그 사람이 바로 술래가 된다. <p>조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술래는 잡으려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확실하게 전달해야 한다. 2.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명확하게 낯선 이름으로 발음하여 한다. <p>◆ 2. 아이엠그라운드 게임</p> <p>조건 : 새로운 이름으로 진행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형으로 앉는다. - 박자는 4박자로 하며 한명씩 새로운 이름을 박자에 맞춰 소개한다. - 다른 사람의 낯선 이름을 최대 4까지 부르면 불린 	<p>T : 우리 익숙한 자아는 경험해보았으니 낯섬을 받아드리는 활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름표를 꺼내어 종이를 뒤집고 내가 오늘 불리고 싶은 새로운 낯선 이름을 작성해주시고 그 이유를 생각해주세요.</p> <p>T : 좋습니다. 우리는 수업이 끝나기 전까지 새로운 이름으로 불릴 것입니다. 새로운 이름을 외우기 어려우니 간단한 활동으로 이름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p> <p>T : 이름 땡 활동과 아이엠그라운드 활동을 할 겁니다.</p> <p>(활동)</p>	<p>조건과 룰에 대해서 경청하며 모르는 부분은 바로 질문한다.</p> <p>◆ 종이 뒷면에 내가 불리고 싶은 이름을 생각해서 작성 후 그 이유도 함께 생각한다.</p> <p>◆ 명확한 이유와 함께 낯선 이름을 공유한다.</p> <p>◆ 활동의 조건 및 규칙을 이해하고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한다.</p> <p>◆ 게임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다치지 않도록 유의한다.</p>	
--	-------------------------	---	--	--	--

		<p>낮선 이름의 대상자는 자신의 이름이 불린 숫자에 맞춰 이름을 말한다.</p> <p>예시) 시작하는 사람 : 포도 넷 ! 포도 : (4박자에 맞춰서) 포도, 포도, 포도, 포도</p>	<p>T : 평소에 불리던 이름이 아닌 오늘 낮선 이름으로 불러보았습니다. 어땠나요? 어색함이나 낯설다는 느낌을 받았나요? 평소이름 대신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면서 익숙했던 나 자신에게 잠시 거리를 두고 새로운 시선으로 자신을 경험해본 것입니다. 이제 이 활동을 넘어 마지막 활동을 해볼겁니다.</p>	<p>◆ 교사의 질문에 느낀 점을 대답한다.</p>	
<p>[오브제] 활용을 통한 즉흥상황극</p>		<p>◆ 오브제 활용 즉흥 상황극을 안내한다.</p> <p>◆ 팀을 구성하고 오브제를 나열하여 고르게 한다.</p> <p>◆ 장소 뽑기를 진행한다.</p> <p>◆ 연습시간은 15분으로 하며 피드백 및 유의사항을 설명한다. 조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소가 명확하게 보일 수 있게 만들 것. 2. 갈등하나를 만들 것. 3. 오브제를 원래 용도가 아닌 오브제로 활용할 것 <p>◆ 발표하고 이야기를 나눈다. 관객은 팀이 정한 오브제가 어떤 오브제로 활용되었는지 나라면 어떤 오브제로 사용했을 것 같은지 이야기를 나눠본다.</p>	<p>T : 첫차시 이론에서 낮설게 하기 표현 방식중 6번째를 기억하나요?</p> <p>T: 네 맞습니다. 바로 오브제 활용으로 낮설게 하기였죠. 우리는 그 표현방식을 활용해서 즉흥상황극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p> <p>T : 선생님이 가져온 오브제 중 팀당 하나를 선택할 겁니다. 그 후 장소를 뽑고 그 장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조건으로 즉흥상황극을 만들어볼겁니다.</p> <p>T : 오브제와 장소를 골랐나요? 그러면 그 오브제의 원래용도 말고 모양과 생김새를 관찰하여 내가 연극의 연출기라면 이 장소에서 어떤 오브제로 활용될 수 있을지 조원들과 상의해봅시다.</p> <p>T : 큰 틀이 정해졌다면 일어나서 움직여봅시다.</p> <p>발표</p> <p>T : 오브제와 장소가 잘 보였나요? 오브제를 어떤 오브제로 낮설게 하여 표현한 것 같나요?</p>	<p>◆ 첫차시 이론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며 대답한다.</p> <p>◆ 조를 나누고 상의 후 오브제 하나를 선정하고 상황극 장소를 뽑는다.</p> <p>◆ 오브제를 변형할 수 있도록 조건을 포함하여 즉흥 상황극을 연습한다.</p> <p>◆ 발표한다.</p> <p>◆ 다른 팀의 발표를 보는 관객입장에서는 오브제를 관찰하여 나라면 또 다른 어떤 오브제로 변형할 것 인가</p>	

				생각한다.	
정리 (10분)	마무리	◆ 학습내용을 정리하고 소감을 나누게 한다.	<p>T : 오늘 우리는 브레히트의 낯설게 하기 이론을 배우고 직접 체험해보았습니다. 이름과 물건처럼 너무 익숙했던 것들을 새롭게 바라보니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p> <p>T : 이러한 시선은 연기와 창작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활동을 마무리 하며 한마디씩 소감을 나눠볼까요?</p> <p>T : 오늘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며 #브레히트 #서사극 # 낯설게 하기 가 머릿속에 들어갔나요?</p> <p>T : 브레히트는 우리가 익숙하게 받아들이던 것을 새롭게 바라보게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물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며 익숙한 것을 다르게 바라보는 경험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사물이나 상황에 대해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연기를 해나 가보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p>	<p>◆ 수업 활동에 대해 생각하고 느낀 점을 토대로 자신의 사고를 말한다.</p> <p>◆ 브레히트의 낯설게 하기 개념을 다시 한 번 복습하고 새로운 이름을 통한 활동과 오브제 변형활동을 통해 새로운 오브제로 만들어낸 활동을 생각하며 마무리한다.</p>	